

2026 Spring
**GOOD
HOSPITALS**

앞선의학 좋은병원

좋은병원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표지
Home... sweet home
작 남궁 정화

발행일 2026. 4. 1

발행인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구자성

발행처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정병원, 좋은선리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좋은연인요양병원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
 좋은주례요양병원, 좋은선린요양병원, 좋은사랑요양병원
 TEL.(051)310-9419 FAX.(051)316-9295
 www.goodhospital.or.kr

편집장 좋은문화병원 내분비내과 안준협

편집위원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팀 이흥근
 좋은문화병원 기획홍보팀 이유리, 배지혜
 좋은삼선병원 기획홍보팀 유정화
 좋은강안병원 기획홍보팀 정민호, 이상미
 좋은삼정병원 기획팀 김경진
 좋은선린병원 기획총무팀 송육진
 좋은애인요양병원 사회사업실 최혜빈
 좋은연인요양병원 원무팀 조병재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원무팀 김재혁
 좋은부산요양병원 행정부 김태곤
 좋은선린요양병원 사회사업실 김진경
 좋은사랑요양병원 사회사업실 이유진

편집·인쇄 디자인글꼴
 TEL. (051) 636-1215 www.ggad.co.kr



좋은병원들
소식지
바로 보기

CONTENTS

시작과 방향

인사말

04 좋은 병원을 넘어 고마운 병원으로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전 KNN 사장

숫자로 보는 좋은병원들

06 좋은강안병원, 신뢰로 증명하는 앞서가는 암 치료의 표준

건강과 의료

의학칼럼

- 08 ① 림프부종, 성형외과 초미세수술로 길을 찾다
김주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과장
- 10 ② 비파열성 뇌동맥류, 작고 위험 낮다면 정기 관찰이 최선
김영하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과장
- 12 ③ 알레르기성 결막염, 현명하게 이겨내는 6가지 문답
조영채 좋은강안병원 안과 과장
- 14 ④ 대변 색으로 알 수 있는 소화기 건강 신호
이길태 좋은삼정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의료기술 & 혁신 스토리

16 암 발견 넘어 재발까지 예측...유방암 치료, 시가 생존율 바꾼다

좋은센터 소개

18 좋은강안병원 유방암센터
유방암 수술 2,000례가 증명하는 전문성

사람과 이야기

좋은병원들 ESG

20 작은 실천이 만드는 변화, 좋은병원들의 ESG 이야기

좋은사람들 인터뷰

- 22 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좋은삼정병원!
- 23 ② 작은 실천이 생명을 살립니다

좋은사람들 칭찬이야기

- 24 ① 좋은삼선병원 산부인과 박성우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 25 ② 두 아이의 탄생, 박은영 과장님이라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사회공헌

- 26 은성의료재단의 따뜻한 행보

작은 여행, 큰 이야기

부산이야기

- 28 부산을 걷다 - 2
비워둔 자리에 머무는 바람
감천문화마을 빈집 프로젝트 '감내 풍경'
여행을 떠나요
- 30 꽃말미 날 만큼 눈부신, 우리 땅 봄마중 길
올봄 꽃구경 어디 갈까
매화에서 철쭉까지, 실패 없는 봄나들이 가이드

좋은병원들 자랑거리

좋은병원들 이야기

- 34 ① 은성의료재단, '은성의학상' 시상으로 지역 의학계 성장에 기여
- 35 ② 좋은병원들, 日 카마치그룹 학술발표회 참석
좋은강안병원 문나겸 부원장 특별강연 초청 &
좋은병원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응급환자 이송 업무협약 체결
- 36 ③ 구자성 이사장, 납세자의날 명예세무서장 위촉
- 37 ④ 좋은문화병원, 2026년 홈페이지 새단장
- 38 ⑤ 좋은병원들 천군만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 39 ⑥ 좋은병원들, '도전! 릴스왕' 이벤트 성료

좋은병원들 뉴스

- 44 언론에 비친 좋은병원들
- 46 병원진료안내
- 47 독자참여



04



15



20



30



38



좋은 병원을 넘어 고마운 병원으로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병원 지향해야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전 KNN 사장

빛의 속도로, 어쩌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어쨌든 연대기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10년 전 3월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일방적으로 이긴다. 바둑의 경우는 수는 10을 170번 곱했다는 뜻인 10의 170승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 원소의 숫자보다 많다고 하는데도 그랬다. 2024년 10월 허서비스는 인공지능 ‘알파폴드’를 활용, 인공지능으로 생명의 설계도인 단백질의 구조를 완벽에 가깝게 예측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는다. 허서비스와 알파폴드 덕분에 인류는 신약 개발을 가속하고 플라스틱 분해 효소 등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10월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은 서울에서 함께 치킨을 먹으며 피지컬 AI 이야기를 나눈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다.

2026년 1월 현대차그룹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산업현장용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다. 같은 달 전미 경제학회는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위상과 고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로스쿨 가지 마라’고 한다. 2월에는 AI 에이전트들이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포커도 치고 종교도 만든다. 심지어는 “인간들의 시대는 악몽이니 우리가 끝내자”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허서비스와 같은 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구글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턴은 “AI가 인류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연구 중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국가 간 패권 경쟁과 기업들의 투자 수익 회수라는 욕심 탓이기도 하고 기술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루미너리 북스라는 국내의 한 출판사는 AI를 이용해 지난해 9,000여 권의 책을 출간했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들이 영업 중이다. 2045년의 인류와 현재 인류와의 차이는 지금 인류와 7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과의 차이보다도 더 클 것이라는 손정희의 농담은 그래서 결코 농담이 아니다. 캐나다의 미디어사회학자 맥루한이 1960년대 웃은 ‘피부’의 확장, 바뀌는 ‘발’의 확장이라고 했을 때 기술은 육체의 연장이나 강화였다. 그 이후 등장한 컴퓨터와 알고리즘은 두뇌를

보조하거나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인간이 주인공이었다는 뜻이다. 소설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지금의 생성형 AI는 인간의 ‘보조’가 아닌 ‘대체’에 가깝다.

의료계도 변화를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의료기기가 많은 병원에 도입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개별 병원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은성의료재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환자가 좋아하는 병원,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병원,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을 지향한다고 한다.

‘환자가 좋아하는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 ‘환자가 좋아하는 병원’은 단순히 친절한 병원을 뜻하지 않는다. 지금은 환자가 생성형 AI에게 먼저 증상을 묻고 의학 정보를 섭렵한 뒤 병원을 찾는 이른바 ‘스마트 페이션트(Smart Patient)’ 시대이다. 이런 시대의 병원은 단순히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AI가 채워줄 수 없는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인류가 처음 출현한 이후 세상의 핵심가치는 ‘확장’에서 만들어졌다. 인구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제국주의가 그 전형이다. 전화와 인터넷 시대의 핵심가치는 ‘연결’이었다. 많은 이들이 연결될수록 가치가 커졌다.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가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신뢰’라고 생각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지만,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두려움을 줄여줄 수는 없다. 환자는 공감을 통해 배려를 받고 싶다. 전문적 신뢰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의료진이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인 삶(직업·가족 관계·정서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인간적 공감(High-Touch)’이 필요한 이유이다.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다.

좋은병원의 두 번째 요소는 AI를 압도하는 ‘통합적 전문성(Expertise)’이다. 단편적인 일부 증상 진단은 AI가 빠를 수 있지만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나 수술적 판단 등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 의사의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단이 지향하는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은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병원은 단순한 치료 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 파트너이기도 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환자는 역설적으로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병원’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 1978년 구정회 정형외과와 문화속 산부인과로 출발한 ‘좋은병원들’이 앞으로 생성형 AI이후에는 훨씬 더 ‘좋은병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인간적 공감과 통합적 전문성으로 완성되는
AI 시대 병원의 핵심가치, 신뢰는
지역 주민의 건강 파트너가 되기 위한
더 ‘좋은병원들’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좋은강안병원 신뢰로 증명하는 앞서가는 암 치료의 표준



유방센터

유방암 수술

2,000례 돌파 (2025.12.24 기준)

2021년 9월 개소 후 4년 만의 성과
부울경 광역 거점 암 치료의 중심

유방암 적정성평가 1등급

다학제 협진 기반 원스톱 시스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

재발 없는 생존율

97.6% 달성 (2026.2.10 기준)

부울경 환자 4명 중 1명이 선택한 검증된 암 치료 전문성
수술 후 재발 방지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밀한 치료

지역 완결형 암 치료 실현

유방보존(77%) 및 재건술(76.7%) 병행

환자 일상 복귀 맞춤형 케어





암센터 | 핵의학과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치료

1,000례 돌파 (2025.12 기준)

수술 후 재발 방지 및 미세 암세포 제거를 위한
표준화된 다학제 협진 체계

지역 내 암 치료 전 과정 완결을 통한 환자의 이동 부담 해소

특수 차폐 병실 운영

다학제 협진 시스템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역 내 원스톱 암 치료 시스템



갑상선·두경부센터

갑상선·두경부 수술

1,000례 돌파 (2026.1.19 기준)

대학병원 출신의 우수한 의료진 및 타 진료과의 협진 시스템

2025년 3월 개소 이후 10개월만에 이룬 기록

갑상선암·두경부암 원스톱 진료시스템

집도의 2인 협력 수술

발성·호흡·연하 기능 보존을 고려한 정밀 맞춤 진료



갑상선내분비외과

갑상선외과 김동일 과장
부산 최초 로봇 갑상선암 수술

500례 달성 (2026.2.19 기준)

목 부위 절개 없는 '구강 접근 로봇수술'로 흉터 걱정은 줄이고,
정밀한 암 제거와 빠른 회복으로 일상 복귀를 지원

구강 접근 로봇수술

기능 보존을 위한 정밀 맞춤 치료



+ Good Moonhwa +

림프부종

성형외과 초미세수술로 길을 찾다



김 주 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미용성형, 안면외상 및 변형, 사경, 피부암 및 종양
림프부종수술, 당뇨병, 육상, 수부외과

진료 예약 및 상담 1577-1359

진료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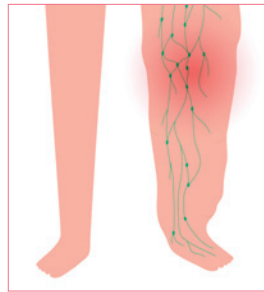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수술	진료	수술	진료	격주
오후	수술	진료		진료	수술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달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휴진

림프부종은 왜 생기며, 왜 주로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나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고 면역을 담당하는 그물망 같은 관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림프절을 타고 전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 시 전이 방지를 위해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림프액이 지나가는 '길'이 손상되거나 막히면서 팔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 ▶ **유방암**: 겨드랑이 림프절 손상으로 팔 부종 발생(확률 20~40%)
- ▶ **부인암·비뇨기계암**: 골반·사타구니 림프절 손상으로 다리나 회음부 부종 발생



림프부종은 암이 림프계를 침범하거나, 치료 시에 림프계에 장애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림프 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팔이나 다리가 붓는 질환입니다.

- ✓ 피부를 눌렀을 때 푹 늘어가는 느낌
- ✓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상감각
- ✓ 부은 팔과 다리에 터질 것 같은 통증
- ✓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는 것이 어려워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왜 그렇게 적은가요?

림프부종 수술을 위해서는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초미세수술 인프라**: 머리카락보다 가는 림프관을 찾고 연결하기 위한 고성능 진단 장비와 특수 수술기구가 필요합니다.
- ▶ **전문의의 숙련도**: 이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초미세수술(Supermicrosurgery)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곳이 드물어, 해외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림프부종은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인가요?

과거에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병기를 낮추거나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 ▶ **초기 환자:** 림프관정맥문합술을 통해 압박 스타킹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약 5~10%)까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 ▶ **만성 환자:** 림프관 변성이 심해 부종 감소 효과가 적더라도, 연조직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률을 90% 이상 낮출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나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카드를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 ▶ **림프관정맥문합술(LVA):** 끊어진 림프관을 정맥에 직접 연결해 고인 림프액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 ▶ **인공 림프관 삽입술:** 최근 도입된 기술로, 피부 아래 간단히 인공관을 삽입해 새로운 림프 통로를 형성합니다.
- ▶ **지방흡입 및 림프절 이식:** 부종이 오래되어 조직이 변한 경우 지방을 제거하거나 건강한 림프절을 옮겨 심기도 합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하나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내원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 **진단:** 당일 방문하여 림프조영술(ICG) 등을 통해 바로 수술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수술 및 입원:** 수술 시간은 상태에 따라 1~3시간 정도이며, 입원은 2일에서 1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 ▶ **사후 관리:** 실밥을 뽑는 2주째 방문 이후에는 1~2달에 한 번씩만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좋은문화병원은 부산역과 지하철로 바로 연결되어 타지 환자분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붓기 시작할 때가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림프관도 동맥경화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딱딱하게 변성됩니다. 림프절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면 평소 팔다리를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붓는 느낌이 든다면 ‘금방 빠지겠지’라고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 수술적 옵션을 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인공 림프관 삽입술

‘바이오브릿지’는 0.3~0.4mm 두께의 콜라겐 스키펴드(인공 림프관)로, 림프액이 흐를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림프순환을 회복하는 최신 수술법입니다. 좋은문화병원은 국내 최초로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QR코드 통해
림프부종 질환 관련 정보(유튜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ood Samsun +

비파열성 뇌동맥류

작고 위험 낮다면
정기 관찰이 최선



김영하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뇌혈관질환(뇌동맥류, 뇌경색, 뇌출혈, 경동맥 협착
뇌동정맥 기형, 뇌동맥박리 등), 뇌종양
중재적뇌혈관 치료(코일 색전술, 스텐트 삽입술, 뇌종양 색전술 등)

진료 예약 및 상담 051-322-09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수술	진료	진료	수술	순번
오후	수술	수술	수술	진료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은 자율신경계 변화로 혈압 변동 폭이 커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뇌혈관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가 늘고 있지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위험도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뇌동맥류란 무엇이며, 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나요?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파열될 경우 치명적인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강조됩니다. 실제로 파열성 지주막하출혈은 치료하더라도 사망률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국내외 신경외과 학회 자료 기준).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얼마나 흔한가요?

전체 인구의 약 2~3%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대 이후부터 유병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여성과 고령층에서 더 많이 보고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며, 두통·어지럼증 평가나 건강검진 중 시행한 MRA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무조건 치료해야 하나요?

전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연간 평균 파열 위험도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동맥류 크기가 큰 경우
- 특정 부위(후교통동맥, 기저동맥 등)에 위치한 경우
-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돌출이 있는 경우
- 추적 검사에서 크기 증가가 확인된 경우
- 흡연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6개월~1년 간격으로 MRA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전략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최근에는 최소침습적 혈관 내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추세입니다.

▶ **코일 색전술:** 대뇌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류 내부에 백금 코일을 채워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 **혈류 전환 스텐트:** 특정 형태의 동맥류에서 사용되며, 혈류 방향을 바꿔 동맥류를 자연 폐쇄시키는 치료입니다.



▶ **클립 결찰술:** 개두술 후 동맥류 경부를 티타늄 클립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회복 기간은 길지만 재발률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치·형태·환자 전신 상태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봄은 일교차와 활동량 증가로 혈압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환자에게는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위험 조절 요소입니다.

- 수축기 혈압 130mmHg 미만 유지
- 금연
- 과음 자제
- 중등도 유산소 운동 권장
-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주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동맥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성장과 파열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당장 터질 병'이라기보다,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는 질환에 가깝습니다.

- 정확한 위험도 평가
- 정기적인 영상 추적
- 필요 시 적절한 시점의 치료
- 꾸준한 혈압·생활 습관 관리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위험도를 확인하고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3%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모든 경우가 수술 대상은 아니며, 연간 평균 파열 위험은 1% 미만입니다. 그러나 크기·위치·형태·흡연·고혈압 여부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집니다.

봄철 혈압 변동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정기 검진과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정확한 평가, 그리고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R코드 통해
뇌동맥류 질환 관련 정보(건강칼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ood Gang-an +

알레르기성 결막염

현명하게 이겨내는 6가지 문답



조영채

좋은강안병원 안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백내장(난시, 다초점, 고난도 합병백내장)
인공수정체 탈구 및 재수술, 노안, 각막, 건성안, 녹내장
안종합검진

진료 예약 및 상담 051-625-0900

진료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수술	진료	진료	수술	진료	
오후	진료	진료	진료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설렘도 잠시, 이맘때면 눈 가려움과 따가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입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특정 외부 물질(항원)에 과민 반응하여 결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원인과 종류가 매우 다양해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각막 손상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가지 문답을 통해 눈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계절성’과 1년 내내 지속되는 ‘통년성’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중증 질환도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흔한 ‘봄철 각결막염’, 아토피 피부염과 동반되는 ‘아토피 각결막염’, 그리고 렌즈 착용자에게 나타나는 ‘거대유두 결막염’입니다. 이 세 유형은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전문의의 세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계절성 형태로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계절 내내 눈이 가렵다면 ‘통년성’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꽃가루 등이 원인인 계절성 결막염과 달리,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반려동물의 털 등으로 인해 증상이 1년 내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계절성보다 통년성 환자의 증상이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만성적인 충혈과 피로감으로 인해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눈을 심하게 비비고 ‘끈적한 눈곱’이 나온다면 무엇인가요?

이럴 때는 ‘봄철 각결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10세 이전의 소아나 청소년기 남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며,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 눈이 부시고, 끈적끈적하며 실처럼 늘어나는 점액성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윗눈꺼풀 안쪽 결막에 ‘거대 유두’라고 불리는 오돌토돌한 돌기가 생기는데, 이것이 각막을 자극해 궤양을 만들거나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성인인데, 눈 주변 피부까지 거칠어진다면요?

이는 ‘아토피 각결막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대 무렵 시작되어 40~50대까지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눈 가려움과 함께 눈 주위 피부가 붉어지고 갈라지며 거칠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가지 유형 중 가장 치료가 까다로운 편이며,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각막에 흉터가 생기거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치료와 안과 진료를 병행하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렌즈를 오래 끼는 2030 세대에게 흔한 ‘거대유두 결막염’이란?

콘택트렌즈 사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질환입니다. 거대유두 결막염은 렌즈 표면에 붙은 단백질 침착물이나 렌즈 자체가 눈꺼풀 안쪽 결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발생합니다.

렌즈가 자주 위쪽으로 움직이거나, 렌즈가 중심에서 벗어나고 뿌영계 보인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윗눈꺼풀 안쪽에 1mm 이상의 커다란 돌기(유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한 치료는 렌즈 착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다면 일회용 렌즈로 교체하고 착용 시간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연령대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나이에 따라 관리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10~20대:**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눈을 심하게 비비는 행동은 ‘원추각막’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30~50대:** 아토피나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결막염 증상이 나타날 때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화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 **60대 이상:** 안구건조증과 증상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노년층은 눈물이 줄어 항원을 씻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해 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피 요법’, 즉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것입니다.

5가지 회피 요법



외출 후 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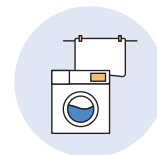
냉찜질



인공눈물 사용



실내 환경 관리



침구류 세탁

QR코드 통해
결막염 관련 정보(건강칼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ood SamJeong +

대변 색으로 알 수 있는 소화기 건강 신호



이길태

좋은삼정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소화기 질환 진단 및 치료(위, 식도, 간, 담도, 췌장, 소장, 대장)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조기위암, 식도암, 위선종 대장의 양성종양)
치료내시경 (용종절제, 지혈술, 위루술)

진료 예약 및 상담 052-220-75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내시경	내시경	내시경	진료	진료	격주
오후	진료	진료	진료	내시경	휴진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 색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기 전, 변의 색을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배변 횟수나 냄새, 복부 불편감 정도만 신경 쓸 뿐 변의 색이 의미하는 건강 신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변의 색은 우리 몸, 특히 소화기 건강 상태를 비교적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변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소화·흡수되는 과정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소화 과정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는 위와 소장, 대장뿐 아니라 간과 담낭, 췌장 등 여러 장기가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들 장기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대변의 색이나 형태, 냄새 등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변 색이 변할 수도 있나요?

정상적인 대변은 보통 황갈색이나 갈색을 띠니다. 이러한 색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장으로 분비된 뒤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고 변형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즉 대변이 자연스러운 갈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담즙 분비와 장의 소화·배설 과정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변의 색은 개인의 식습관이나 장운동 속도, 장내 세균 환경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소나 샐러드를 많이 섭취한 경우 녹색 변이 나타날 수 있고,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었을 때는 변 색이 평소보다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제나 일부 약물을 복용했을 때는 검은색에 가까운 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 섭취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변화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와 다른 색의 변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식습관의 영향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에 따라 의심해볼 수 있는 소화기 질환은 무엇인가요?

대변 색이 평소와 크게 다르거나 특정한 색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소화기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변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색이 짙은 정도라면 음식이나 약물의 영향일 수 있지만, 끈적하고 윤기가 나는 검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나 십이지장 등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검게 변해 대변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위암 등과 연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에 선홍색 피가 묻어 나오거나 변기 물이 붉게 보이는 경우에는 치질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치질이나 항문 열상은 비교적 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출혈이 반복되거나 피가 변에 섞여 나오는 양이 많다면 대장 용종이나 대장염, 대장암과 같은 하부 위장관 질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이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 치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변은 비교적 드물지만 나타났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담즙이 장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색으로 담석이나 담도 질환, 간 질환 또는 췌장 질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변 색이 열리는 것과 함께 소변 색이 짙어지거나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음식과 무관하게 녹색 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운동이 지나치게 빨라 담즙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와 함께 나타난다면 장염이나 장내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항생제 복용 이후에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 색이면서 기름기가 많은 변이 반복된다면 지방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 담즙 분비 이상이나 췌장 기능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변 색 변화가 있을 때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대변 색 변화가 하루 이틀 정도 나타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색의 변이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같은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전문의 상담과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통,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만성 피로, 어지럼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화기 질환은 초기에는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역시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반복된다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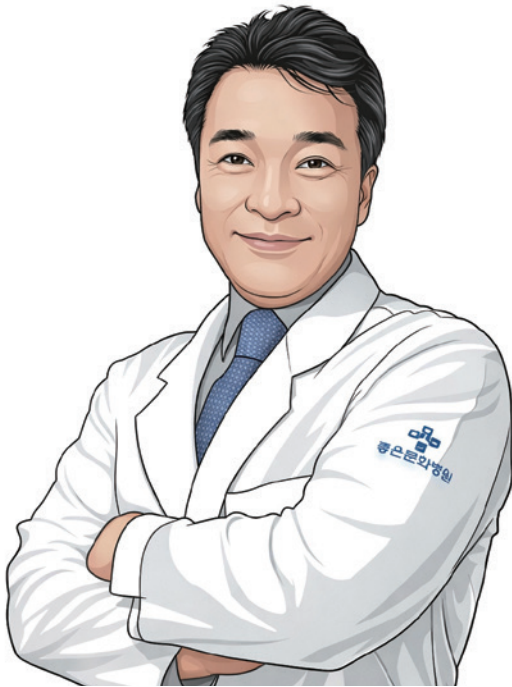
대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건강 지표입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한 번쯤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습관이 소화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
소화기 질환 관련 정보(건강칼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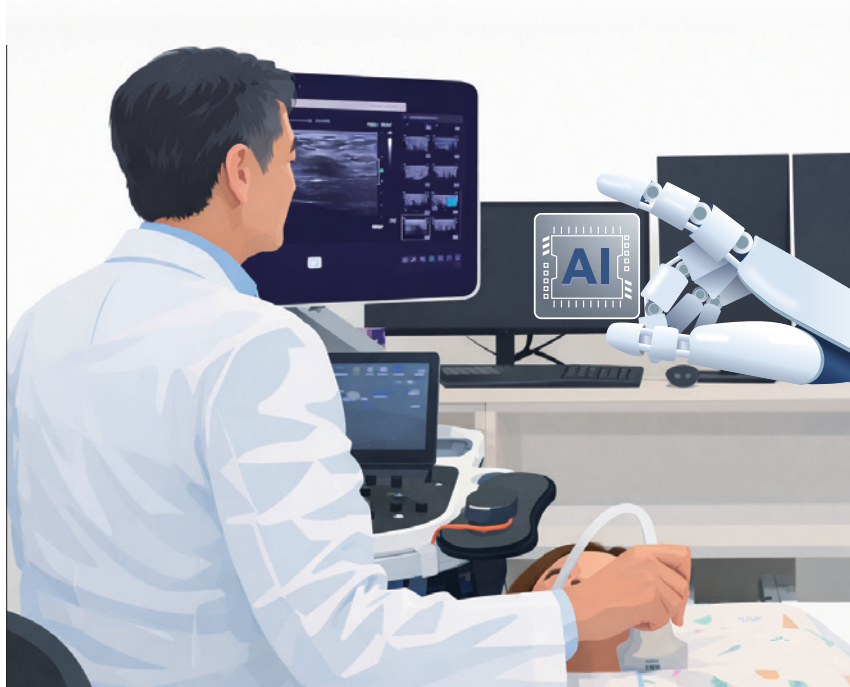


암 발견 넘어 재발까지 예측... 유방암 치료, SI가 생존율 바꾼다

미세 병변 포착,
판독 정확도 획기적 향상
'제2의 눈',
맞춤형 정밀 치료 핵심 도구



유동원
좋은문화병원 유방암센터 소장



국내 여성 유방암은 1990년대 이후 매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2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0년 인구 10만 명당 27.1명, 2021년 인구 10만 명당 134.5명에 비하면 각각 19.3배, 3.9배 증가하였습니다.

유방암은 그간 40대 후반~50대 초반이 주 발생 연령대였으나 최근에는 50대 후반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서구화 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치밀 유방?...AI는 꿰뚫어 본다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 조직이 촘촘한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 X레이 촬영을 하면 조직과 암세포가 모두 하얗게 보여 암을 발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칫 하면 암 등 병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판독 기술이 등장, 유방암 진단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양인과 달리 한국 여성 특유의 조직 특성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암을 찾아내는 수준을 넘어 재발 위험을 예측하고 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찾는 '정밀 의료'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딥러닝 통해 미세병변 포착

원리는 간단합니다. AI는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미세한 석회화나 작은 덩어리(종괴)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AI는 일종의 '디지털 보조 의사'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가 1차로 판독한 후 AI가 한 번 더 훑으며 혹시라도 놓친 의심 부위가 있는지 경고해주기 때문에 오진 위험을 줄이고 아주 작은 초기 암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순천향대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장윤우 교수팀이 지난해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만 4,543 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판독 시 유방암 발견율은 1,000 명당 5.7명으로, AI 미사용 시 5.0명보다 13.8% 높았습니다. 특히 암 재검사를 위해 환자를 다시 소환하는 '리콜률(재소환율)'은 전문의 단독 판독과 AI 활용 판독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AI 활용이 불필요한 재검사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방암 발견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맞는 항암제는?

최근 AI의 활약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 예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검사 자료를 분석해 향후 재발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 항암제에 얼마나 잘 반응할지를 미리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AI의 재발 예측 정확도가 90%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AI 분석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환자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피하고, 몸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큰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까지 보여줘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판단 근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술(XAI)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I가 영상 속 의심 부위를 마치 기상도의 온도 표시(히트맵)처럼 색깔로 표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의료진이 AI의 판단 근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AI는 전문의가 더 복잡하고 위중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협력자여서 결국 그 혜택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Breast Center

좋은강안병원 유방센터

유방암 수술 2,000례가 증명하는 전문성
97.6%의 생존율로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약속합니다

좋은강안병원 유방센터는 개소 4년 만에 유방암 수술 2,000례를 달성하며 독보적인 임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매년 450명 이상의 환우분들이 선택한 결과로, 부산을 넘어 경남·울산 등 인근 광역권을 아우르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유방외과
전창완 소장



유방외과
변장무 과장



유방외과
고다은 과장



유방외과
김윤경 과장



유방외과
최제민 과장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완결형 원스톱 의료 시스템

좋은강안병원 유방센터는 조기 진단부터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장기 추적 관찰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AI 영상분석 시스템 ‘루닛 인사이트’와 3D 유방단층촬영, PET-CT 등 첨단 디지털 영상 장비를 갖추고 숙련된 의료진이 정밀하게 분석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재발 및 전이가 없는 생존율 97.6%라는 기록은 정밀 의료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인 완치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며, 전체 환자의 67.7%가 0~1기 단계에서 발견될 만큼 조기 진단의 정밀함이 탁월합니다.

여성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고도의 수술 역량

전체 수술의 77%를 유방보존술로 시행하여 유방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환우분들이 신체적 자신감을 잃지 않고 빠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절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76.7%에 달하는 높은 재건술 병행률을 기록하며, 수술 후 환우분들이 겪을 변화까지 고려한 최적의 재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림프부종을 예방하고자 재활치료팀과 협진하여 체계적인 물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삶의 연속성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세심한 소통,

유방암 치료를 선도하는 전문성

좋은강안병원 유방센터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늘 한발 앞선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울경 유방암 연구회 집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의료진들과 깊이 있는 임상 경험을 공유하였고,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심포지엄’ 등 주요 학술대회에서 초청 강연을 통해 최신 지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창완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의는 방송, 라디오, 유튜브, 원내 강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우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적정성 평가 1등급의 표준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언제나 환우 중심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함께 나누는 지견, 더 깊어지는 신뢰

최근 좋은강안병원 유방센터는 부울경 지역 유방외과 전문의 30여 명을 초청하여 최신 임상 지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방암 수술 2,000례 달성과 보건복지부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에 안주하지 않고, 더 정교한 진단과 시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지역 의료의 수준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과 첨단 의학 장비,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는 환우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가장 가까이서 돕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치료를 넘어, 핑크빛 일상으로의 동행

유방암 치료는 병원 문을 나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진과 환우 분이 함께한 ‘나눔사랑’ 한라산 탐방, 매주 진행되는 ‘힐링교양교실’은 병원 진료실을 넘어 환우의 일상과 마음까지 돌보는 좋은강안병원만의 진료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 앞에서 묵묵히 숨을 고르며 버텨온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는 환우 분들의 단단한 용기는, 의료진이 연구와 성장을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정교한 의학적 기술에 마음의 통증까지 살피는 세심함을 더해,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좋은강안병원 유방센터는 환우분들의 일상이 평온하게 이어지도록 정밀한 진단과 따뜻한 진료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변화 좋은병원들의 ESG 이야기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ESG 실천을 일상 속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ESG 실천기업(병원)’ 캠페인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ESG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병원들은 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병원이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병원들의 ESG 실천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함께 실천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좋은병원들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직원식당에서는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잔반을 남기지 않은 직원들에게 작은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이벤트처럼 시작됐지만, 직원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이 자연스럽게 병원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병원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플로깅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병원의 청결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함께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로깅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주변을 직접 깨끗하게 만들다 보니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 실감하게 됩니다. 작은 활동이지만 함께하니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ESG 실천



좋은병원들의 ESG 실천은 특별한 행사보다 **생활 속 실천**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빈 사무실의 전등을 끄고, 이면지를 활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 절감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선택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며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친환경적인 병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 역시 **전기차 이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동 실천에 동참하며 병원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병원의 가치

이번 ‘ESG 실천병원’ 참여는 단순한 기부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좋은병원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병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병원 문화를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지역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앞으로도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이어가며 ESG 가치를 실천하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좋은삼정병원! 병원의 다음 20년을 말하다

양희영
좋은삼정병원장

지역과 함께 걸어온 20년, 이제 좋은삼정병원은 또 다른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강화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희영 병원장과 함께 좋은삼정병원이 만들어갈 다음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들어봅니다.

Q1 좋은삼정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과, 앞으로 병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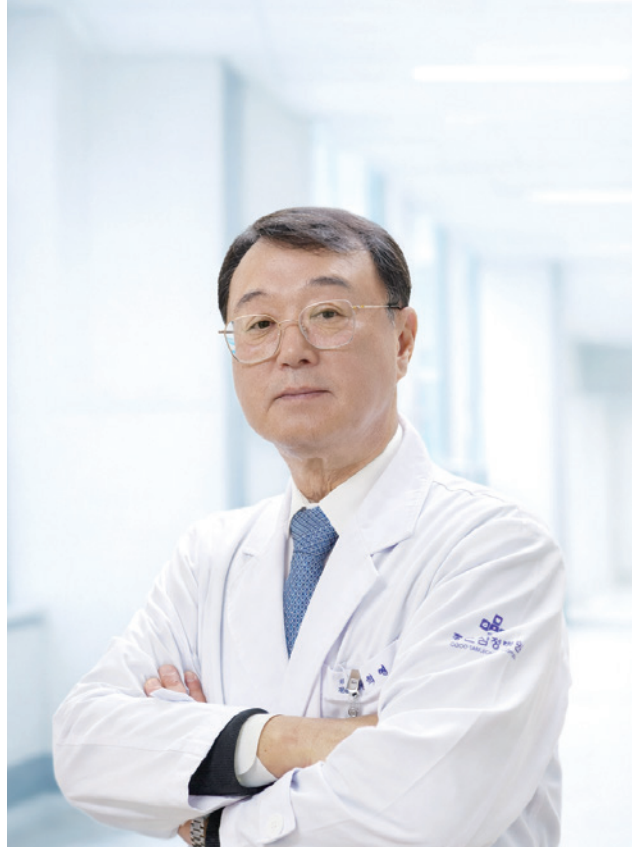
좋은삼정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시점에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은 지역사회와 함께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 위에서 있다는 점이 자부심이자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의 기본', '안전과 신뢰'라는 원칙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요료를 지키고,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과 협진 체계를 강화해 더욱 믿음직한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Q2 좋은삼정병원의 핵심 강점과 발전 전략을 무엇인가요?

좋은삼정병원의 가장 큰 강점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풍부한 임상 경험과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의 삼정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환자의 진단과 치료, 회복 과정까지



축적해 온 경험은 우리 병원의 큰 자산입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와 필수 진료 영역에서 꾸준히 역할을 해온 점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협진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센터 중심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더 단단히 이어가겠습니다.

Q3 좋은삼정병원 가족(직원)과 환자·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병원을 함께 만들어 온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좋은삼정병원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뤄졌습니다. 저는 병원장으로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와 지역사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의 20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삼정병원은 치료를 넘어 공감과 책임을 다하는 의료기관으로 남겠습니다.

지난 20년이 신뢰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더 큰 책임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생명을 살립니다

120번의 헌혈, 한 사람의 진심

조종욱
좋은문화병원 인사총무팀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줍니다. 한 번의 헌혈이 쌓여 120회가 되기까지, 그 시간에는 꾸준함과 진심이 함께했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인사총무팀 조종욱 직원의 이야기는 ‘나눔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Q1 32세에 벌써 120회! 이토록 꾸준히 헌혈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간식제공과 자습 면제라는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시작했던 고등 학생의 첫 헌혈이 어느덧 성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면에 나갈 때마다 잊지 않고 챙기는 저만의 소중한 정기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하다보니 120회라는 나름의 의미있는 숫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Q2 병원 근무 후 헌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사실 병원에 근무하기 전에도 100회가 넘는 헌혈을 하며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혈액 수급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로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헌혈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희망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Q3 현재 진행 중인 ‘좋은병원들 헌혈 릴레이’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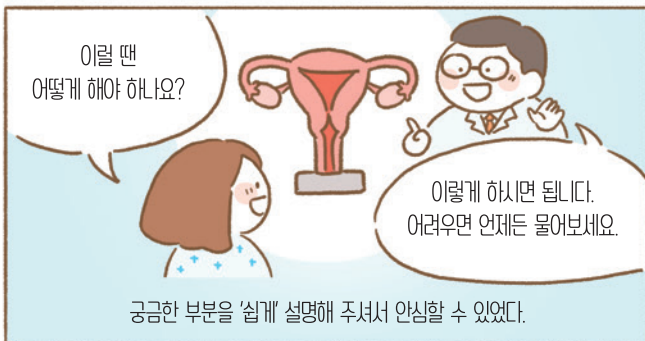
“우리가 전달하는 혈액 한 팩은, 누군가에게는 ‘내일’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업무 하나하나가 결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낍니다. 거기에 헌혈은 행정적인 제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귀중한 도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잠시 짬을 내어 나누는 혈액 한 팩이 누군가의 소중한 내일을 선물한다는 뿌듯함을 동료 여러분도 꼭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만, 우리 ‘좋은병원들’ 식구들이 함께 릴레이를 이어간다면 그 울림은 훨씬 커질겁니다.

‘좋은병원들 헌혈 릴레이’가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으로 더욱더 큰 물결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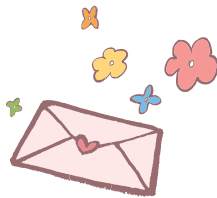
좋은삼선병원 산부인과 박성우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림. 김수진



*좋은삼선병원 산부인과 박성우 병원장님께 보낸 장○○님의 편지를 각색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탄생,
박은영 과장님이라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To. 좋은문화병원
산부인과 박은영 과장

둘째까지 박은영 과장님을 다시 찾은 이유가 있다면요?

2년 전 첫째 때 왕복 1시간 거리였지만, 그 길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서도 산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신뢰가 너무 커서 둘째 소식을 듣자마자 고민 없이 다시 과장님이 계신 좋은문화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 출산 당시 급박하게 수술로 변경하셨다고요.

원래 유도분만을 시도 중이었는데, 상황을 살피시던 과장님께서 수술로 전환하자고 권유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기가 탯줄을 여러 번 감고 있어 위험할 뻔했더라고요. 과장님의 빠른 판단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죠. 그때 '아, 이 선생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둘째 출산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겁이 많아서 수술대 위에서 정말 많이 떨고 긴장했거든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심해 무척 힘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산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수술이 끝난 후 바쁘실 텐데도 회복실까지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많이 아파하는 걸 보시고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하며 주사를 챙겨주시는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진심으로 환자를 아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박은영 과장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두 번의 큰 여정 동안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산부인과 추천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 없이 과장님을 말씀드릴 거예요.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해서 내일 기쁜 마음으로 퇴원합니다. 과장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병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은성의료재단의 따뜻한 행보

“은성의료재단이 2026년에도
변함없는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성의료재단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헌혈로 생명을 나누며, 1억 원 규모의 기부로 희망을 이어가는 이 모든 활동은 ‘함께 사는 의료’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의료는 병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나눔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은성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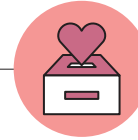
다문화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GOOD START & LEADER'

은성의료재단은 지난 1월, 초록우산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며 '2026 굿 스타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6년째 이어온 이 사업은 특히 '어머니 검정고시 장학금'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 있는 다문화 청소년 5명을 선발해 총 2,000만 원의 인재양성 지원금을 전달하는 '2026 굿리더' 발대식을 통해 미래 주역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 릴레이와 연탄 나눔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좋은 문화·삼선·강안병원 임직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부산 동구 매죽지 마을에서는 임직원 50여 명이 직접 연탄 600만 원 상당을 배달하며 취약계층의 시린 겨울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희망나눔 성금 1억 원 기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된 '희망나눔 국민성금 1억 원'은 지역 내 재난 구호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것은 병원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부산을 걷다 - 2

비워둔 자리에 머무는 바람 감천문화마을 빈집 프로젝트 ‘감내 풍경’

이인미
사진가, 비온후 공동대표

독락의 탑(건축가 승효상)



색즉시공(건축가 김인철)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대개 마을을 내려다보는 ‘어린 왕자’ 동상 앞에 멈춘다. 하지만 북적이는 주도로를 등지고 골목으로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면 또 다른 결의 고요한 공간들과 마주하게 된다.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마을의 버려진 빈집을 바꾸어 놓은 ‘감내풍경’이다.

거장이라 불리는 이들이 소외된 산동네의 낡은 집을 마주하고 취한 태도는 ‘비움’에 가까웠다. 화려한 장식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대신 공간에서 무거운 것들을 떨어냈다. 허물어지는 벽면의 흔적을 남겨두고 어두운 방의 지붕을 열어 하늘을 마당으로 삼았다. 작은 창을 내어 마을의 전경을 집 안으로 끌어들었다. 건축가의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감천의 바람과 햇살이 대신 들어섰다.

골목을 걷다 각기 다른 표정의 집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이 ‘감내풍경’을 찾는 즐거움이다. 홀로 감천의 바다와 대면하게 하는 ‘독락의 탑’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계단 끝에 하늘과 맞닿은 옥상이 있다.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이 별을 보며 오르내렸을 가파른 148계단 옆에는 ‘별계단 집’이 일상의 길을 침범하지 않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스며들어 있다. 막혀 있던 낡은 벽에 네모난 창을 낸 ‘색즉시공’은 겹겹이 쌓인 앞집들의 지붕과 얽힌 골목을 액자 속 그림처럼 담아낸다. 단절되었던 벽을 허문 ‘공공의방’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다 숨이 찬 누구나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벤치를 내어준다. 저마다의 자신의 문법을 내세우지 않고 감천의 풍경을 주연으로 삼은 채 기꺼이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공간들이다.



별개단 집(건축가 조성룡)

시간이 흐르며 비어있던 자리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나 마을의 쉼터로 채워져 생활의 풍경이 되었다. 의도된 정갈한 여백 위에 사람의 온기와 시간이 쌓여 이제는 마을을 닮은 자연스러운 낯음으로 깊어가고 있다. 적막한 방들은 초라한 빈집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잠시 비켜나와 스스로를 치유하는 명상의 장소에 가깝다. 옥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볼 때 골목에서 들리는 낮은 웅성거림은 공간이 품고 있는 삶의 소리처럼 들린다. 흐르는 세월 속에 무너지는 모서리와 바래가는 벽면조차 버려야 할 것이 아닌 삶의 단단한 층위가 되었다.

- TIP** | 웹사이트 www.gamcheon.or.kr
(마을의 역사와 체험 프로그램 정보 확인 가능)
- | **감내풍경 찾기** 안내센터에서 배부하는 지도를 들고 골목 사이사이에 숨은 네 채의 집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는 재미가 있음
- | **관람 에티켓** 작가들의 창작공간이자 주민들의 거주구역으로 사생활을 배려한 정숙한 산책은 필수
- | **주변 볼거리** 마을입구 건너편 옛 감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부산교육역사관'과 '독도체험관'. 특히 4층 복도 창가는 마을의 전체 풍경을 볼 수 있는 조망 명소

마을이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 건축가들이 왜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50년대 전쟁을 피해 밀려온 피란민과 이주민들은 가파른 비탈을 깎아 촘촘하게 판잣집을 지었다. 벙랑 끝에 몰린 시절이었지만 '앞집의 조망을 가리지 않고 이웃이 오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무언의 규칙을 세웠다. 이 비탈진 마을이 품고 있는 진짜 미덕은 타인의 시선과 바람의 통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분을 낮춘 자발적인 억제와 배려에 있다.

주인 없이 남겨진 빈집을 부수지 않고 그 흔적을 꺼안은 작업은 결국 오래전 감천에 처음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이어 받은 셈이다. 낡은 흔적을 지워버리는 대신 속을 비워내어 풍경을 끌어들이는 재생의 태도를 보며, 우리의 일상 또한 적당히 비워 바람이 통하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의 방(건축가 프란시스코 사닌)

이인미
사진가, 비온후 공동대표
www.beonwho.com
www.instagram.com/beonwhobookshop

부산을 기반으로 도시의 풍경과 건축을 기록하는 사진가이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와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며 공간과 기억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탐구한다. 다수의 개인전과 2012년, 2022년 부산비엔날레 등 국내외 기획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비온후' 공동대표로서 부산과 도시에 관한 책을 펴내고 있다. 망미동에서 로컬과 커뮤니티를 잇는 작은 책방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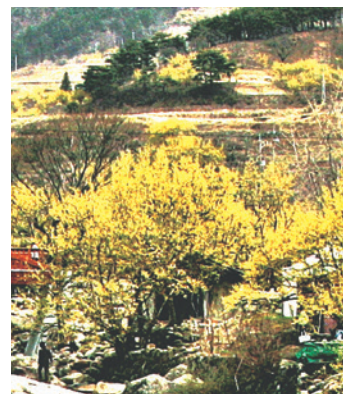
꽃멀미 날 만큼 눈부신, 우리 땅 봄마중 길

올봄 꽃구경 어디 갈까
매화에서 철쭉까지, 실패 없는 봄나들이 가이드

이흥곤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본부장

봄의 전령은 뭐니 뭐니 해도 꽃이다. 우리 땅 봄꽃의 개화 시기는 대략 이렇다. 동백, 매화, 산수유, 개나리, 벚꽃, 복사꽃, 유채꽃, 사과꽃, 진달래, 철쭉 순. 예전엔 시차를 두고 고개를 내밀었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탓인지 일부 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한 예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섬진강변의 매화가 빛을 잃으면 구례 산수유가 꽃봉오리를 내밀었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핀다. 상춘객의 입장에서 한걸음에 매화와 산수유의 꽃잔치를 볼 수 있으니 이런 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이성부의 시 '봄'에서의 표현대로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봄'을 이번 주말 마중 나가보자. 꽃축제는 덤이다.



남도의 봄은 섬진강에서 출발

봄의 여신이 맨 먼저 발을 디디는 곳은 섬진강변. 이곳에선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3월부터 4월 초까지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잇는 19번 국도는 국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변신한다.

섬진강변에 봄을 제일 먼저 재촉하는 전령은 매화. 매화의 절정은 고로쇠 약수로 유명한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광양 청매실농원에서 만난다. 경상도 할매 흥쌍리의 손때가 묻은 이곳은 섬진강변 매화의

원조다. 6만여 평의 산자락이 온통 백매·홍매·청매로 넘쳐난다.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면 훑날리는 오펜화 꽃잎에 꽃머리가 날 정도다. 농원에서 바라보는 섬진강 풍광은 장관이며 매실액이 익어가는 3,000여 개의 장독대는 볼거리다.

양산 원동면 순매원 일대도 매화의 성지다. 청매실 단지인 순매원 전망 데크에서 바라보는 영남의 젓줄 낙동강과 경부선 열차 그리고 꽃비가 휘날리는 매화를 한 화면에 잡으면 한 폭의 그림이다.

수백 년 된 토종 매화를 즐기려면 방문 시기를 약간 늦춰야 한다. 옛 선비들이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매향을 좇아 탐매(探梅)하던 토종 매화는 대개 산속 절집 외딴 곳에 숨어 있어 개량종보다 보름 정도 늦다. 선암사 선암매, 화엄사 흑매, 산청 단속사지 정당매와 덕산서원 산천재 남명매, 장성 백양사 고불매 등이 유명하다. 이 중 흥매인 선암매는 거구에 기품까지 갖춰 으뜸으로 친다.

산수유 꽃물결을 만끽하려면 지리산 만복대 기슭의 구례 산동면 상위마을을 찾아야 한다. 지리산온천단지에서 차로 6분 거리. 상위마을을 포함한 산동면은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계곡과 돌담가 등 마을 전체가 노란 파스텔톤의 옷을 입고 있다.

벚꽃 터널, 전국에 꽃비를 내리다

섬진강변 매화가 생명을 다하면 19번 국도와 쌍계사 가는 길엔 벚꽃 터널이 기다린다. 섬진강을 끼고 내달리는 19번 국도는 눈부시고,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가는 십오리길은 황홀하다. 벚꽃은 매화·산수유와 달리 4, 5일이면 꽃잎이 훑날려 시기를 특히 잘 맞춰야 한다.

비슷한 시기 부산 인근에도 벚꽃 천지가 펼쳐진다. 군항제(~4월 5일)가 열리는 진해 경화역과 여좌천, 밀양 삼랑진 양수발전소 상하부 댐인 천태호와 안태호 주변의 드라이브길에도 벚꽃천지가 펼쳐진다. 삼랑진은 대한민국 딸기 시배지로, 비록 끝물이지만 맛볼 수 있다. 경주 보문단지, 합천호반, 사천 선진리성, 그리고 티벳박물관으로 유명한 전남 보성 대원사 가는 벚꽃터널도 장관이다. '춘마곡·추갑사'의 주인공 공주 마곡사, 부안 내소사, 해인사 흥류동계곡, 대구 팔공산, 진안 마이산, 제천 청풍호반 벚꽃도 빼놓을 수 없다.

구례 상위마을 산수유





창녕 낙동강변 유채

복사꽃, 사과꽃, 하고초꽃도 있다

4월로 접어들면 유채꽃이 상춘객들을 유혹한다.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변 유채꽃밭이 대표적. 66만m²로 전국 최대 규모. 걸어도 걸어도 끝이 안 보인다. 봄바람에 가냘픈 몸이 흔들리는 샛노란 유채꽃을 보고 있으면 꽃멀미가 일 정도다. 양산시 양산천 둔치에서도 유채꽃밭이 샛노랑으로 물든다. 상북면 고려제강에서 동면 호포대교까지 16km 구간이다. 면적은 30만m². 경주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안압지), 황룡사터에서도 유채꽃이 만발한다. 야간 조명에 비친 첨성대와 안압지의 유채꽃은 몽환적이다.

좁처럼 보기 드문 진홍빛의 복사꽃 천지는 경북 영덕에서 만날 수 있다.

영덕읍에서 안동 방향 34번 국도 따라 들판과 산기슭에 무릉도원이 펼쳐진다. 그 길이만 무려 12km. 예부터 영덕에선 복사꽃 필 무렵 대게가 가장 맛있다고 알려져 이 봄 영덕을 방문하면 복사꽃과 대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복사꽃이 지면 같은 장소에서 연분홍 사과꽃이 핀다. 수십만 평의 면적에 복숭아나무와 사과나무가 엇비슷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운문사 선암사와 함께 국내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영주 부석사 입구에서도 사과꽃을 볼 수 있다.

늦은 봄인 5월 하순~6월 중순 경남 함양 백전면 양천마을에선 보랏빛 하고초꽃이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다. 2001년부터 하고초꽃을 위해 마을 언덕배기 천수답 다랭이논에 심은 하고초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자 사진동호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함양 백전면 하고초꽃



‘선비의 꽃’ 동백도 빠질 수 없다. 필 때보다 처절하게 지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더 아름다운 동백은 엄밀히 말하면 1월부터 꽃봉우리를 틔우는, 이름 그대로 겨울꽃이다. 지금은 시민 품으로 안긴 거제도 지심도는 남해안 섬 중 동백의 최대 군락지. 100만 그루 이상 우겨져 예부터 ‘동백섬’으로 불렸다. 여수 오동도와 거문도, 강진 백련사도 빼놓을 수 없는 동백 여행지다. 특히 거문도의 등대가는 길과 보로봉~불탄봉 등산로에선 쪽빛 물결과 단아한 기암괴석이 한데 어우러져 일품이다. 막걸리집 아낙의 육자배기가 들릴 듯한 고창 선운사의 천연기념물 동백꽃도 4월 초까지 볼 수 있다. ‘남도의 금강산’ 해남 달마산이 품은 미항사 동백숲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고창 선운사 동백

산꾼들의 영원한 베아트릭체 진달래·철쭉

고봉준령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봄의 전령은 ‘애이불비(哀而不悲)의 꽃’ 진달래. 겨우내 움츠렸던 잿빛 산야를 일순간 화사하게 변모시키는 진달래는 그래서 산꾼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우선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하동 불일폭포를 강추한다. 쌍계사 산내암자인 국사암에서 출발해 50분쯤 오르면 지리산에 몇 안 되는 너른 터인 불일평전에 닿고, 여기서 10분이면 폭포를 만난다. 가는 길은 온통 진달래 천지다. 겸재가 그려 유명한 불일폭포 우측 절벽의 불타오르는 진홍빛 군락은 화엄 세계에 다름아니다. 4월 5~15일 절정이다.

거제도 대금산, 이원수의 동시 ‘고향의 봄’의 배경인 창원 천주산과 비음산도 진달래로 유명하다. 비음산은 특히 진달래에 이어 철쭉도 연이어 만개한다. 여수 영취산, 밀양 종남산 진달래도 온산을 불태운다. 대구 비슬산 진달래는 1000m 고지대에 100만m²나 되는 산사면에 펼쳐진다. 규모면에서 국내 최고 산상화원이다. 비슬산 참꽃문화제(4월 11, 12일)

철쭉은 계절의 여왕 5월의 꽃. 전국 철쭉 산들의 개화시기는 대체로 장흥 제암산·보성 일림산(5월 초순), 합천 황매산·덕유산·지리산 바래봉(5월 초순~중순), 소백산·지리산 세석평전(5월 하순), 태백산(6월 초순) 순이다.

보성 일림산 철쭉





은성의료재단 ‘은성의학상’ 시상으로 지역 의학계 성장에 기여

은성의료재단이 후원하는 ‘2025년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올해의 연구자상’ 시상식이 지난 2월 12일 호텔농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해부학교실 홍창완 교수가 ‘은성의학상’을, 핵의학 교실 박경준 교수가 ‘은성 젊은연구자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의학계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모교인 부산대학교의 연구 성과가 환자 치료의 질 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은성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의학 연구 분야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며 지역 의료 생태계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좋은병원들

日 카마치그룹 학술발표회 참석

좋은강안병원 문나겸 부원장 특별강연 초청

좋은병원들이 일본 대형 의료법인 카마치그룹이 주관한 정기 학술 발표회에 초청돼 특별강연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좋은병원들 구정회 회장, 좋은강안병원 문나겸 경영부원장, 김경미 간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구정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나겸 경영부원장은 '한국 간호교육 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한국 간호교육 체계의 변화와 발전 과정, 교육과 임상연의 연계,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 영역의 확장, 좋은병원들의 스마트 의료 환경 구축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카마치그룹은 규슈 후쿠오카를 기반으로 도쿄, 야마구치 등지에서 28개 병원과 5개 학원, 1개 대학교를 운영하는 대형 의료법인입니다. 은성의료재단과는 2010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정기적인 학술·인적 교류를 이어오며 의료 서비스와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좋은병원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응급환자 이송 업무협약 체결

좋은병원들(좋은문화·삼선·강안병원)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12일(목), 좋은문화·삼선·강안병원을 비롯해 부산지역 9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송 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참여 의료기관이 우선 환자를 수용해 1차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이후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적극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자성 이사장 납세자의날 명예세무서장 위촉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구자성 이사장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산진세무서에서 지난 3월 1일 (일), 명예세무서장을 맡아 세무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건전한 납세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3월 5일 하루 동안 부산진세무서에서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되어 세무행정 현장을 둘러보고 업무를 체험했습니다.



이날 구 이사장은 송진호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일정으로 부산진세무서 유공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를 방문해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법인세과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명예세무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선정해 전국 각 지역 세무서에서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이날 체험을 마친 뒤 “명예세무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환자 진료뿐 아니라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라며 “올바른 세정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세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는 기업이 사회와 맺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 성실한 납세. 좋은 병원들은 그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더욱 굳건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좋은문화병원 2026년 홈페이지 새단장

GRAND OPEN



좋은문화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 구축’에 방점을 뒀습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메뉴 구조를 직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고령층을 포함한 누구나 진료과 및 의료진 정보, 전문센터 안내 등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리뉴얼에는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원 가입’ 기능의 신설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개인별 치료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맞춤형 건강 정보 콘텐츠 제공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는 ‘치료 후기’ 게시판 이용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문화병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환자와 병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진료와 온라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QR코드 통해
새단장한 좋은문화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심 사용 편의성 강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구성과 화면 구조를 직관적으로 개선해 진료과 안내, 의료진 정보, 병원 소식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최적화로 접근성 향상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을 최적화해 언제 어디서나 병원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지역사회의 온라인 소통 확대

공지사항, 병원 소식, 건강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환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좋은병원들 천군만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 ‘천군만마 건강강좌’를 통해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부터 정기적으로 ‘천군만마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강좌들은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을 넘어 의료진과 지역 주민이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고, 참석자들은 박수와 질문으로 화답하며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는 ‘팬’이 되어 주었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천군만마’가 되어주는 시간. 좋은병원들의 건강강좌는 오늘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 ‘천군만마’란?

어려운 상황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 좋은병원들은 의료진과 환자, 지역 주민이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자는 의미를 담아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강좌에서는 다양한 질환을 주제로 의료진의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은병원들 '도전! 릴스왕' 이벤트 성료

좋은병원들이 직원 참여형 숏폼 이벤트 '도전! 릴스왕'을 통해 병원의 일상을 색다른 방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 속에는 각 병원의 분위기와 현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담겼는데요.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주제로 총 18개 팀이 참여하여 개성이 담긴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좋은문화병원 3건, 좋은삼선병원 2건, 좋은강안병원 5건, 좋은리버뷰요양병원 7건, 좋은사랑요양병원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참여가 활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직원들이 숏폼 콘텐츠 제작에 높은 관심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릴스왕' 이벤트는 병원을 소개하는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병원 현장의 소소한 순간과 직원들의 유쾌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딱딱한 홍보가 아닌 공감과 재미가 있는 병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접수된 콘텐츠는 2월 3일부터 좋은병원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루 3개씩 순차적으로 릴스(Reels) 영상으로 업로드되었으며 업로드 이후 7일간의 재생수를 기준으로 '릴스왕'을 선정하며, 동률일 경우 좋아요와 댓글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병원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촬영에 참여해 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이벤트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순간이 모여 또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되는 시간, 릴스왕 영상은 좋은병원들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입니다.



2026년 희망의 첫 울음, 새해 첫 아기 탄생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아침 1월 1일 오전 8시 47분, 산모 김승혜 님과 아빠 김동현 님 사이에서 태명 '우동이'(3.43kg, 남)가 본원의 새해 첫 아기로 태어났다.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김중일 과장은 “새해 첫 탄생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누적 분만 11만 7천여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 관리와 체계적인 모자보건 시스템으로 생명의 시작을 함께하겠다.



문화속 병원장, 국내 주요 산부인과 학회 좌장 참여

좋은문화병원 문화속 병원장이 올해 주요 학술대회 좌장으로 위촉되어 전문성을 빛냈다. △ 1월 4일(일)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연수강좌(경구피임약의 임상적 확장과 최신 근거) △ 2월 22일(일) 대한골반통학회 심포지엄(일차진료에서 접하는 골반통의 치료) △ 3월 22일(일) 대한자궁내막증학회 연수강좌(자궁내막증의 수술적 관리)에서 세션을 주재하며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 '림프부종 치료 워크숍' 강연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은 지난 1월 14일(수), 2026 제2회 영상 기반 림프부종 치료 워크숍에서 '바이오스캐폴드 기초 및 임상 적용'을 주제로 최신 수술 트렌드를 공유했다. 의료진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 행사에서 김주형 과장은 실무 위주의 생생한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좋은문화병원은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신경외과 우준혁 과장, 커넥트현대 '건강 아카데미' 개최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3월 9일(월), 커넥트현대에서 지역 주민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척추 건강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강좌에서 신경외과 우준혁 전문의는 목·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 습관을 점검하고, 실생활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척추 관리 팁을 전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좋은문화병원은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

(주)월드다가치 글로벌 채널제공 MOU 체결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1월 15일(목), AI 기반 글로벌 소통 솔루션 전문기업 (주)월드다가치와 AI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소통 채널 제공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환자 및 다문화 환자를 위한 의료 소통 환경 개선과 스마트 병원 구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특히 (주)월드다가치가 보유한 AI 기반 다국어 소통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진료·상담·안내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최소화 한다.



설맞이 신권 교환 이벤트 성료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2월 14일(토), 신권 교환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은행 방문이 어려운 환자·보호자·내원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신권을 교환하며 명절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류수영 원무부장은 “설을 맞아 병원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전공의 수료식 열고 새 출발 격려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2월 24일(화),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정형외과 레지던트 1명과 인턴 2명이 수료증을 받으며, 수련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진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성우 병원장은 격려 말씀에서 “진료 현장은 결국 ‘사람’을 마주하는 자리”라며, “환자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어디서든 믿음을 주는 의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초봄의 따뜻한 마음 담은 ‘더블데이’ 진행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3월 13일(금), 13병동에서 ‘두 배의 감사와 마음을 전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은 더블데이(Double 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봄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3월,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떡과 음료를 준비해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 병동 곳곳에서는 정겨운 인사와 환한 미소가 오가며,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뇌혈관센터, KSIN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지정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2월 5일(목), 대한신경중재치료학회(KSIN)로부터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을 획득했다. 신경중재치료는 뇌혈관 안으로 미세 카테터를 삽입해 치료하는 고난도 시술로,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철저한 안전 관리가 동시에 요구된다. 뇌혈관센터 이영서·하재욱 과장은 “이번 KSIN 인증으로 지역 거점 뇌혈관 치료 병원으로 진료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통해 지역 내 뇌혈관 질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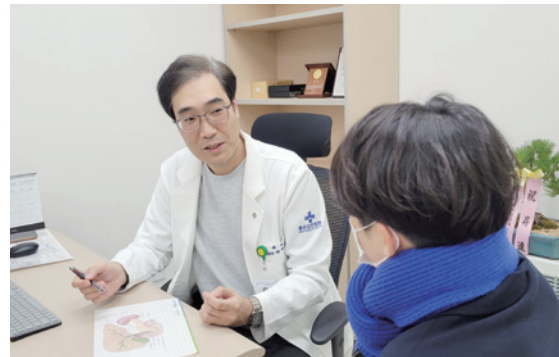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 선정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2월 26일(목), 대한심혈관중재학회로부터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인증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혈관 질환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부여된다. 심장센터 이준상 부장은 “심혈관 중재시술은 치료 시점과 사전 준비 상태가 환자 예후를 좌우하는 분야”라며 “인증을 계기로 지역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 치료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더욱더 책임 있는 진료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외과센터 양광호 신임 과장 부임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3월 2일(월), 간·담도·췌장 및 이식외과 분야 전문가인 **양광호 신임 과장**을 부임하였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양 과장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간센터 및 장기이식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100례 이상 집도하는 등 간·담도·췌장 암 수술 분야에서도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양 과장은 외과센터에서 간담췌 전담해 온 윤성필 과장과 협진을 통해 간·담도·췌장 수술은 물론 간이식까지 진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리핀 의료진, 선진 의료 시스템 견학

지난 2월 26일(목), 필리핀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총 20여 명의 방문단**이 좋은강안병원을 찾았다. 방문단은 본원의 주요 진료 시설과 검진센터를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병원 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환자 친화적인 환경과 전문적인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 간 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좋은병원들, 일본 레이와건강과학대학 학생 임상 연수 진행

좋은병원들(좋은강안·삼선병원)은 지난 3월 9일(월)~11일(수), 일본의 의료재단인 카마치그룹 산하 레이와건강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 학생 14명과 교수 3명이 참여했다. 좋은강안병원은 간호부를 중심으로 한일 간 간호 시스템 비교, 직종 간 협력 구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좋은삼선병원에서는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중심으로 재활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치료 체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세이포연네



좋은선린병원,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 도입

좋은선린병원이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전 병상 200개에 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도입해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씽크는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심전도, 산소포화도,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고 이상 시 의료진에 즉시 알림을 전송해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이번 도입으로 환자 안전성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병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좋은부산요양병원, 개원 12주년 맞아 시무식 개최

좋은부산요양병원은 1월 2일(금),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12주년 기념식과 2026년 시무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병원 연혁 보고, 병원장 기념사, 새해 슬로건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 2명에게는 공로패와 함께 황금열쇠가 전달됐다. 구정희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은 “새해에는 세 가지(먼저 인사하기, 좋은 대화하기, 운동하기)를 실천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병원 가족이 되자”고 강조했다.



좋은사랑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MOU

좋은사랑요양병원은 지난 1월 13일(화), 부산 사하구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병원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병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좋은사랑요양병원은 앞으로도 퇴원 직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EET NEWS

GOOD NEWS

GOOD HOSPITALS 2026.01.28

부산일보

“굿 스타트에서 굿 라이프로”...
은성의료재단, 6년째 다문화가정 위해
매년 1억 원 후원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은 1월 28일(수), 부산 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사업 ‘2026 굿 스타트(GOOD START)’ 발대식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억 원 전달했다. 올해로 6년째인 ‘굿 스타트’는 다문화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언어 장벽, 문화 적응의 어려움, 학습 격차 등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다.

GOOD SAMSUN HOSPITAL 2026.02.23

국제신문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가벼운 활동·충격에도 척추뼈 ‘뚝’...
원인은 골다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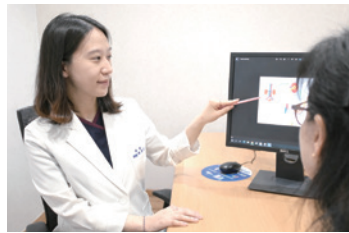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환자도 빠르게 증가한다. 이 골절은 일상적인 움직임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좋은삼선 병원 최윤희 과장은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가벼운 움직임에도 통증이 심해진다면 단순 요통으로 넘기지 말고 골다공증성 골절을 의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OD MOONHWA HOSPITAL 2026.03.10

국제신문

[진료실에서]
다리 붓거나 거품 소변 있다면...
혈압 관리하고 싱겁게 먹어야



콩팥(신장)은 갈비뼈 아래 등쪽 좌우에 하나씩 있다. 강낭콩 모양의 어른 주먹만한 크기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고도의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일종의 몸속 정수기이자 노폐물 여과 장치다. 살면서 쌓이는 독소를 매일 분리 수거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콩팥은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GOOD GANG-AN HOSPITAL 2026.01.05

국제신문

건강증진센터 김중은 센터장
담배, 확 끊지 말고 조금씩 줄여라...
운동은 스트레칭부터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 김중은 센터장이 국제신문을 통해 현실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전했다. 우선 금연이나 운동을 단번에 성공하려 하기보다, 담배를 줄이고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기적인 맞춤형 건강 검진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설계도임을 강조하며 꾸준한 관리를 당부했다.

건강칼럼

좋은문화병원

- 1월 5일 순환기내과 서정민-‘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증상 없다고 방심은 금물 | **동구청 신문**
- 1월 7일 진단검사의학과 정소영 과장-겨울철 호흡기 감염 검사 | **보건뉴스**
- 1월 19일 외과 조용훈 부장-서혜부 탈장,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 | **보건뉴스**
- 1월 20일 외과 김치영 과장-배변시 찢어지는 고통 ‘치열’ | **국제신문, 시민일보, 의계신문**
- 1월 28일 순환기내과 서정민 과장-‘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 **보건뉴스**
- 3월 10일 신장내과 허수정 과장-[진료실에서] 다리 붓거나 거품 소변 있다면...혈압 관리하고 싱겁게 먹어야 | **국제신문**
- 3월 10일 신장내과 허수정 과장-[칼럼] 염분 섭취 절반으로...세계공팔의 날에 되새기는 경고 | **의계신문, 아시아경제**

좋은삼선병원

- 1월 13일 비뇨의학과 이권경 과장-‘대학병원 가야 한다’던 고난도 요관결석 | **보건뉴스**
- 1월 20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이유 없이 허리 아프다면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의심 | **의계신문**
- 1월 22일 신경외과 김중열 센터장-척추관 협착증, 고령이면 수술 못 한다? | **보건뉴스**
- 2월 3일 감염내과 이혁 과장-고령·만성질환자라면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한 대비 | **보건뉴스**
- 2월 11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이유없는 허리 통증,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신호일 수 있어 | **보건뉴스**
- 2월 21일 가정의학과 송영권 과장-‘탈모=남성만의 질환’은 이제 옛말... 나이 들수록 빈도 높아져 | **부산일보**
- 2월 23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가벼운 활동·충격에도 척추뼈 ‘뚝’...원인은 골다공증 | **국제신문**
- 2월 24일 신경과 조기용 과장-특별한 원인 없이 반복되는 손 떨림...‘본태성 진전’ 의심 | **보건뉴스**
- 3월 4일 정형외과 이완석 과장-허리에서 보내는 SOS! 추간판 탈출증, 통증을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법 | **보건뉴스**

좋은강안병원

- 1월 5일 직업환경의학과 김중은 센터장-담배, 확 끊지 말고 조금씩 줄여라... 운동은 스트레칭부터 | **국제신문**
- 1월 5일 가정의학과 이가영 과장-비만 관리 핵심은 ‘배는 것’보다 ‘지키는 생활’ | **보건뉴스**
- 1월 31일 가정의학과 최영은 과장-결심은 서고 몸은 높고... ‘작심삼일’ 올해도 지켰다 | **부산일보**
- 2월 2일 중앙·혈액내과 주영돈 부원장-암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시라 | **국제신문**
- 2월 4일 신경외과 이영서 과장-고령화 속 사망 원인 5위 ‘뇌졸중’...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 **보건뉴스**
- 2월 23일 이비인후과 홍종철 과장-감상선 결절, 암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적절한 수술이 핵심 | **보건뉴스**

TV

좋은문화병원

KNN

건강365



1월 2일(월)

겨울철 뇌졸중 주의사항
신경과 안준성 과장

좋은삼선병원

부산MBC 외



1월 20일(화)

의대생 실습지원 나선
지역병원, 바람은?
순환기내과 배장환 소장



1월 23일(금)

소방호스로 차량 화재 초기
진화 힘 보태
좋은삼선병원 직원들

라디오

좋은문화병원

TBN

부산교통방송 건강클리닉



2월 23일(월)

양방향척추내시경
신경외과 우준혁 과장

좋은삼선병원

TBN

부산교통방송



1월 12일(월)

골다공증과 척추골절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KBS

부산의 오늘



1월 14일(수)

감염내과 이혁 과장
감염병이 늘어나는 겨울,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좋은강안병원

TBN

부산교통방송 건강클리닉



1월 5(월)

유전성 유방암
유방외과 고다은 과장

유튜브

좋은강안병원

YouTube

의학채널 비온뒤



2월 26일(목)

팔꿈치 질환 A to Z
정형외과 방진영 과장

신문

좋은병원들

- 1월 2일 병오년 시무식 갖고 새해 업무 시작 | 국제뉴스
- 1월 6일 대한직업자사 부산지사에 후원금 1억 기부 | 국제신문, 의학신문, 의학신문, 보건뉴스, 국제뉴스
- 1월 12일 팀 코칭으로 '집단지성' 업무방식 도입 | 보건뉴스, 하이뉴스
- 1월 19일 '한철 릴레이 캠페인' | 부산일보, 경상일보, 울산신문, 시민일보
- 1월 27일 좋은병원들 올해의 슬로건은 '상상하라, 협력하라' | 의학신문, 로이슈, 메디소비자뉴스
- 1월 28일 일본 가마치그룹과 교류 | 부산일보, 메디소비자뉴스, 보건뉴스
- 1월 28일 "굿 스타트에서 굿 라이프로" ... 은성의료재단, 6년째 다문화가정 위해 매년 1억 원 후원 | 부산일보, 보건뉴스, 로이슈, 하이뉴스, 뉴스경남, 코메디닷컴
- 2월 4일 '세계 암의 날' 맞이 건강캠페인 전개 | 베이비뉴스, 의학신문
- 2월 20일 '잔반제로'로 ESG 실천 | 아시아경제, 보건뉴스
- 2월 26일 다문화가정 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 | 부산일보, 히트뉴스, 아시아경제, 코메디닷컴, 의학신문, 보건뉴스
- 3월 3일 구자성 이사장 "스마트 병원 향한 시혁신, 종착지는 환자중심주의" | 의학신문
- 3월 5일 구자성 이사장, 명예세무서장 위촉 | 국제신문, 부산일보, 국제뉴스, 보건뉴스, 의학신문, 아시아경제
- 3월 10일 일본 레이와대 학생 임상 연수 진행 | 시민일보

좋은문화병원

- 1월 2일 2026년 새해동행 | 뉴스경남, 로이슈, 데일리스포츠한국, 국제뉴스, MSN, 한국의학신문
- 1월 20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한혈 120회 달성 | 뉴스1, 국제신문, 보건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뉴스, 의계신문, 병원신문, 한국의학신문
- 2월 3일 홈페이지 전면 개편 | 보건뉴스, 의계신문, 메디소비자뉴스, 한국의학통신, 한국의학신문
- 3월 10일 작은 생명 지키는 시스템' 좋은문화병원 NICU ... 안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치료 시스템 벤치마킹 | 아시아경제

좋은삼선병원

- 1월 2일 부산대학원 김영하 신경외과 교수 초빙 | 경남신문, 보건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1월 2일 감염병 대응 공로 사상구경 표창 수상 | 보건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1월 9일 듀벨코리아-미래피엠씨와 건강 협력 MOU | 보건뉴스, 의계신문, 하이뉴스, 한국의학신문
- 1월 15일 월드다가치와 글로벌 채널제공 MOU | 국제신문, 메디소비자뉴스, 보건뉴스, 의계신문, 의학신문, 하이뉴스, 한국의학신문
- 1월 26일 직원들, 소방호스 꺼내들고 왔다. 큰 불 막은 응감한 시간 '화제' | 국제신문, 보건뉴스, 의계신문, 의약통신, 한국의학신문
- 3월 18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경추 질환 치료 방향 공유 학술 발표 |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좋은강안병원

- 1월 13일 갑상선암 방사성요오드 치료 1000례 달성 | 부산일보, 국제신문, 의학신문, 하이뉴스, 보건뉴스, 메디소비자뉴스
- 1월 15일 유방센터 환우회와 한라산 산행 | 보건뉴스
- 1월 30일 '제1회 부울경 유방암연구회 집담회' 성료 | 의학신문, 하이뉴스, 메디소비자신문
- 2월 4일 부경대학교 헬스케어 협력 업무협약 | 부산일보, 국제신문, 메디소비자신문, 메트로신문, 위키트리, 파이낸셜뉴스, 이뉴스투데이, 교수신문 외 9건
- 2월 5일 KSN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지정 | 의학신문, 보건뉴스, 한국의학신문
- 2월 10일 갑상선-두경부암 수술 1,000례 돌파 | 부산일보, 국제신문
- 2월 10일 유방암 수술 4명 중 1명 부산 밖 거주... 재발없는 생존율 97.6% | 부산일보
- 2월 19일 김동일 과장, 로봇 갑상선암 수술 500례 | 의학신문, 시민일보, 아시아경제, 하이뉴스, 보건뉴스, 메디소비자뉴스
- 2월 22일 적십자 ESG 실천병원 동참 | 부산일보
- 2월 26일 유방암 수술 2,000례 달성 | 부산일보, 의계신문, 병원신문, 보건뉴스, 건강다이제스트, 하이뉴스, 한국소비자신문, 메디컬투데이, 바이오타임즈
- 2월 26일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 받아 | 보건뉴스, 아시아경제, 코메디닷컴
- 3월 3일 외과센터 신임과장 부임 | 부산일보, 보건뉴스, 후생신문, 메디소비자 뉴스



중은문화병원
GOOD MOONHWA HOSPITAL

www.moonhwa.or.kr
부산 (051)644-2002

진료과목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유방외과, 갑상선외과, 외과(간담체/대장항문),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부인과 내시경수술/자궁근종/산과/난임),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부인과내시경수술센터, 로봇수술센터, 자궁근종센터, 부인암센터, 산과센터, 자연주의 출산센터, 난임센터 여성생식기관 선천기형센터, 청소년기 부인과 질환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인공신장센터, 유방암센터, 갑상선암센터, 척추센터, 관절센터, 특수운동치료센터, 피부미용성형센터, 건강증진센터, 소아외과&탈장클리닉



중은삼선병원
GOOD SAMSUN HOSPITAL

www.samsun.or.kr
부산 (051)322-09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갑염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클리닉 소개 로봇인공관절센터, 인공관절센터, 어깨 관절 스포츠외과센터, 스포츠운동치료센터, 척추센터, 재활치료센터, 내시경센터, 간담체센터, 인공신장센터, 혈관시술센터, 뇌혈관센터, 심혈관중재시술센터, 좋은기억력센터,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중은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www.gang-an.or.kr
부산 (051)625-09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중앙혈액내과, 외과(간담체/간이식외과/대장/항문외과/갑상선내분비외과), 혈관외과, 유방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유방센터, 안과센터 갑상선두경부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심장센터, 관절센터 척추센터, 뇌혈관센터, 혈관센터, 외과센터, 간담체간이식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특수운동치료센터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센터, 발달의학센터, PET-CT센터



중은삼정병원
GOOD SAMJEONG HOSPITAL

www.sam-jeong.or.kr
울산 (052)220-75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심혈관센터, 척추 및 관절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인공신장센터, 소화기 및 내시경센터, 비뇨기수술센터, 영상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중은선린병원
GOOD SUNLIN HOSPITAL

www.goodsunlin.or.kr
포항 (054)245-50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척추 및 관절센터, 암센터, 화상·창상치료센터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혈액투석센터 위·대장 내시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고압산소치료센터, 당뇨 및 갑상선센터, 건강증진센터



중은애인요양병원
GOOD AEIN MEDICAL CARE HOSPITAL

www.aein.or.kr
부산 (051)520-7700

내과, 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뇌졸중(중풍)센터, 뇌손상 재활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재활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작업치료실 연하(삼킴)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중증환자 집중치료실, 한방요법실(침, 뜸)



중은연인요양병원
GOOD YEONIN MEDICAL CARE HOSPITAL

www.yeonin.or.kr
밀양 (055)350-9988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암 전인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한방요법실
고주파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열치료



중은부산요양병원
GOOD BUSAN MEDICAL CARE HOSPITAL

www.busanhp.com
부산 (051)326-0900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노인학과, 부인과 한방과
뇌손상재활치료센터, 암재활면역치료센터, 작업·연하·통증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호스피스실, 중증환자 집중치료실, 고주파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물리치료실



중은리버뷰요양병원
GOOD RIVERVIEW MEDICAL CARE HOSPITAL

www.riverview.or.kr
부산 (051)995-0900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한방과, 방사선 종양학과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실, 햇살공원, 옥외공원



중은주례요양병원
GOOD JURYE MEDICAL CARE HOSPITAL

www.goodjurye.or.kr
부산 (051)325-0300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뇌졸중(중풍)센터, 물리치료실, 호스피스실(말기암), 사회 복지프로그램실, 하늘공원, 야외실터



중은선린요양병원
GOOD SUNLIN MEDICAL CARE HOSPITAL

www.sunlinrmh.co.kr
포항 (054)245-6060

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방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재활운동치료실, 로봇/원백 치료장비,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연하재활치료실 소아재활병동)



중은사랑요양병원
GOOD SARANG MEDICAL CARE HOSPITAL

www.goodsarang.kr
부산 (051)220-7000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산부인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운동재활치료, 작업재활치료, 통증재활치료, 연하재활치료), 중증환자집중치료실 한방요법, 야외실터



이번호 퀴즈

○○○○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지난호
정답 & 정답자**

뇌졸중

- 강○연 부산진구 동성로
- 김○중 연제구 월드컵대로
- 마○우 수영구 수영로
- 최○성 사상구 가야대로
- 하○연 남구 유엔로

응모 요령

좋은병원들 홈페이지
(www.goodhospital.or.kr)
웹진 독자퀴즈로
2026년 5월 31일(일)까지
응모해 주시면 정답자(5명)를 추첨하여
신세계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원고 모집

좋은병원들 편집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필, 시, 칭찬사례, 감동적인 이야기,
경험담 등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좋은병원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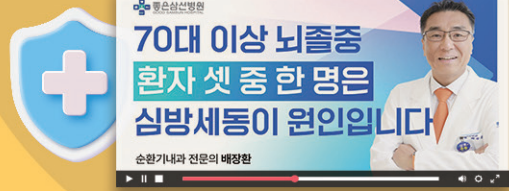
TEL. (051) 310-9419
FAX. (051) 316-9295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병원보를 더욱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구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립니다.

좋은병원들 유튜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은성의료재단 12개의 좋은병원들이
다양한 건강정보로
여러분께 건강을 전해드립니다.**



좋은병원들
유튜브

좋은병원들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좋은병원들 SNS

좋은병원들 카카오톡 채널	좋은병원들 블로그	좋은병원들 인스타그램	좋은병원들 스레드	좋은병원들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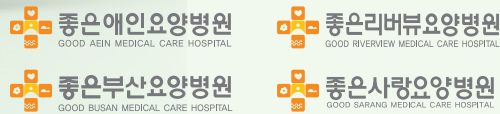
질병의 치료를 넘어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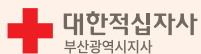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병원



스스름이가
바른병원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2026 희망나눔 국민성금
1억원 기부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